

# 열 다섯 어머니를 모신 박종규 경찰관



활동유형	동화	활동수준	공통수준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태도를 가진다.</li> <li>■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li> </ul>		
교육과정 관련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생활영역-듣기-바른 태도로 듣기</li> <li>■ 언어생활영역-듣기-이야기 듣고 이해하기</li> <li>■ 사회생활영역-사회현상에 관심 가지기-주변 지역에 관심가지기</li> </ul>		
활동자료 (CD에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사진</li> <li>• 동화 PPT </li> </ul>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3, 1fr); gap: 5px;"> <!-- Row 1 --> <div data-bbox="421 1025 722 1256"> </div> <div data-bbox="738 1025 1040 1256"> </div> <div data-bbox="1056 1025 1358 1256"> </div> <!-- Row 2 --> <div data-bbox="421 1272 722 1503"> </div> <div data-bbox="738 1272 1040 1503"> </div> <div data-bbox="1056 1272 1358 1503"> </div> <!-- Row 3 --> <div data-bbox="421 1518 722 1749"> </div> <div data-bbox="738 1518 1040 1749">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 1장 </li> </ul> <div data-bbox="421 1814 622 2060"> </div>		

## 활동내용 및 방법

▶ **가족사진을 보며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이 사진 속 가족은 누가 있을까?
- 어머니는 몇 분 계시니? 오늘 동화 속 주인공에게는 열 다섯명의 어머니가 계시다고 해. 어떻게 해서 열 다섯명의 어머니가 계시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 **동화를 들려준다.**

▶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

- 동화의 내용을 회상하며 이야기 나눈다.
  - 경찰관 아저씨는 어머니가 몇 분 계셨니?
  - 15분의 어머니들은 어떤 분들이었니?
  - 왜 어머니가 그렇게 많았을까?
  - 어머니(할머니)들에게 경찰관 아저씨는 어떻게 해 드렸니?
  - 어머님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 너희들이 경찰관 아저씨라면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해 드리겠니?
  - 너희도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니?
  - 주변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계시니?
  -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해 드리면 좋을까?

<b>활동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li> <li>■ 동화를 바른 태도로 듣는가?</li> </ul>
<b>확장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를 듣고 나서 동극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li> <li>■ 활동지 -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도시락 꾸미기</li> </ul>
<b>동화내용</b>	<p>■ <b>열 다섯 어머니를 보신 박종규 경찰관</b></p> <p>1. 밤샘 철야근무에 눈꺼풀은 자꾸 내려 앉지만 아저씨는 잠자리 대신 부엌을 찾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아저씨가 부시럭 부시럭, 딸그락 딸그락 소리를 내며 정성스레 만든 건 녹차죽입니다.</p> <p>2. 서울 노원 경찰서에 근무하고 계신 아저씨에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외에 14명의 어머니가 더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저씨는 6년째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을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기 때문입니다. 추석날 아저씨는 자신이 제일 잘 만드는 녹차죽을 가지고 외롭고 쓸쓸한 어머</p>

니들을 찾아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3. “이런, 바쁜 사람이 왜 또 왔어?”, 공할머니는 왜 왔냐면서도 반갑게 아저씨의 손을 잡습니다. “얼굴만 봐도 든든한데 뭐 이런 걸 자꾸 들고 와”, “소화가 잘 안되지않아요. 이 죽 드세요.”, 공할머니와 아저씨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꼭 다정한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4.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저 없다고 끼니 거르시는 건 아니시죠? 어휴.. 방은 왜 이리 추워요?” 아저씨는 이날 이렇게 14명의 할머니 집을 방문해 손수 밥상을 차려 드리고, 손발도 주물러 드리며 밀린 청소도 했습니다. 고단한 하루일과에 밤샘근무까지 한 아저씨의 심신은 이미 지쳐있었지만, 아저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14명이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고 합니다.
5. 아저씨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돌보게 된 것은 1999년 말 치매 증세를 보이던 한 할머니가 길을 잃고 경찰서에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애태웠는데 우연히 할머니의 호주머니 속에서 찾아낸 빛바랜 사진 덕분에 노인 복지관에 계시던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6. 아저씨는 그 때부터 길 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찾아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주변 지역을 돌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필요한 영정사진 촬영 봉사로 발전했습니다. 때론 꺼림직 해 하는 분도 계셨지만, 아저씨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찍어 드리면 더 오래오래 사진대요.”
7. 아저씨는 영정사진을 ‘사랑의 장수사진’이라 이름 붙이고 액자에 넣어서 선물했고 지금까지 선물한 액자 수가 무려 900여개나 됩니다. 아저씨는 노인들이 사진을 받고 “어머, 이게 나야? 예쁘게 나왔네.”라고 좋아하시던 모습을 보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진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봉사로 아저씨에겐 지금의 열 다섯명의 어머니가 생기게 되었답니다.